

# <도산십이곡>과 <어부사시사>, 그 표현의도와 수사학\*

류해춘\*\*

## <차례>

1. 서론
2. 창작동기와 표현의도
3. 작품에 나타난 수사학
4. 결론

## <국문초록>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과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는 한국의 16세기와 17세기를 대표하는 시조문학이라 할 수 있다. <도산십이곡>이 산수자연을 즐기면서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온유둔후(溫柔敦厚)한 강호가도(江湖歌道)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면, <어부사시사>는 산수자연에서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강호한정(江湖閑情)과 물외한적(物外閑寂)의 감흥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수사학적인 측면에서도 <도산십이곡>은 은유(隱喻)의 수사학을 통해서 수직적 계열체의 언어를 반복하고 나열하여 변화하지 않는 동일성의 세계를 함축하는 안빈낙도의 정신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시조가 시작되면서 그 뜻이 앞의 내용과 다르게 전개되기보다는 시조의 초장이나 첫 장에 그 의미가 정해져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은유

\* 이 논문은 한국고시기문학회가 주최한 제23회 전국학술발표대회(한국고시문학관, 2010년 8월 20일)에서 『영·호남 시가문학의 교섭관계』라는 주제로 발표한 글임을 밝혀 둔다. 주제발표 당시에 토론을 맡아서 좋은 견해를 제시해준 김신중(전남대) 교수에게 감사를 드린다.

\*\* 성결대학교

의 수사학은 기호와 관념사이의 모순이 없는 등과관계로 연결시켜 보편적이고 관념적인 세계를 드러내기엔 편리한 수사학이라 할 수 있다. 은유의 수사학을 통해서 <도산십이곡>은 사대부(士大夫)가 선(善)적인 미의식으로 자연을 바라보면서 온유둔후한 유교적 미의식을 겸선(兼善)이라는 관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어부사시사>에 나타난 환유(換喻)의 수사학은 경험적이고 특수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확대시켜 관련되는 단어와 문장을 확장하여 통합적으로 그 의미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유의 수사학을 통해서 <어부사시사>는 자연으로 돌아온 일사(逸士)가 미(美)적인 측면에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강호한정과 물외한적의 미의식을 구체적이고 경험적으로 드러내어 독선(獨善)의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은유의 수사학이 문맥 내에서 전통지향적이고 정적이고 결정적이라면, 환유의 수사학은 문맥 내에서 미래지향적이고 동적이며 미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조선중기 <도산십이곡>과 <어부사시사>는 사대부가 정치현실에 나아가 경세제민의 의식을 표출한 시가라기보다는 산수자연에 은거하면서 안빈낙도를 표출하는 시가이며, 사대부들의 출처관(出處觀) 중에서 출(出)보다는 처(處)에 관한 견해가 중심이 되어 형상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 사대부(士大夫), 온유둔후(溫柔敦厚), 강호가도(江湖歌道), 물외한적(物外閑寂), 독선(獨善), 겸선(兼善), 출처관(出處觀), 은유(隱喻), 환유(換喻), 선(善)적 자연, 미(美)적 자연

## 1. 서론

조선시대의 사대부는 성리학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정치현실에 나아가 경제제민(經世濟民)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고약한 정치현실을 만나면, 사대부는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와 산수자연에 묻혀 살면서 성리학적 수양과 함께 다양한 사상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살았다. 그러므로 사대부는 현실정치에서 은퇴하여 산수자연으로 돌아와도 현실을 도피하면서 완전하게 도가적으로 은둔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시조는 사대부들의 도학적 지향과 풍류정신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장르이다. 이황(1501-1570)의 <도산십이곡><sup>1)</sup>은 16세기 성리학의 정신과 유학자의 일상생활과 전원생활을 강호가도(江湖歌道)로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이고<sup>2)</sup>, 윤선도(1587-1671)의 <어부사시사><sup>3)</sup>는 17세기의 유학자의 풍류정신과 전원생활 및 여가생활을 강호가도로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이다.<sup>4)</sup> 이 시기 사대부들은 정치현실에 입문하면 입신양명(立身揚名)하고 경제제민함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려고 하였지만, 정치현실에서 밀려나오면 산수자연에서 안빈낙도(安貧樂道)와 강호한정(江湖閑情)의 감흥을 추구하면서 생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산수자연으로 돌아온 사대부들은 도의를 함양하고 심성을 수양하는 공간으로 산수자연을 표현하거나, 산수자연을 일상생활의 공간이나 여가생활의 한 공간으로 여겼다.

주지하듯이 16세기 <도산십이곡>과 17세기 <어부사시사>는 조선중기 사대부들의 성리학적 세계관과 풍류정신을 표출하는 대표작품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도산십이곡>과 <어부사시사>의 연구는 작가론과 작품론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수사학으로 <도산십이곡>과 <어부

1) 이동환, 『퇴계문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18집, 1990, 1-11면.  
2) 조윤재, 『한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63, 130-141면.  
3) 조동일, 『고산연구의 회고와 전망』, 『고산연구』 제1집, 1987, 347-358면.  
4)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출판부, 1977, 35-43면.  
김홍규, 『강호자연과 정치현실』, 『세계의문학』 제19호, 1981, 민음사, 참조.

사시사>를 분석하고 있는 논의는 최근에 와서 시작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조선중기 이황의 <도산십이곡>과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나타난 산수자연의 표현양상과 그 수사학적 세계관을 서로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창작동기와 표현의도

시조는 정형시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작가가 정형시인 시조를 창작하려하면, 그 작가는 시조라는 장르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조의 3장 6구의 구조라든가 가창되어야 한다는 등의 고시조가 갖는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도산십이곡>과 <어부사시사>는 작가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어부사>나 <육가> 등의 시가를 개혁하기 위해서 산수자연을 시조로 읊어내고 있는 작품이다. 문학적 장르는 관습의 산물인 것이고 시조와 같은 정형시의 경우에는 그 관습이 구체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황과 윤선도는 <도산십이곡>과 <어부사시사>의 개작을 통해서 기존의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싶어 했다.

<어부사시사>와 <도산십이곡>의 창작동기와 표현의도의 기록은 구체적으로 남아 있어 그 검토가 가능하다. 퇴계의 <도산십이곡>이나 고산의 <어부사시사>의 창작동기는 각 작품의 발문(跋文)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두 작품을 창작하도록 영향을 끼친 요소가 무엇인지를 추적해서 그 표현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작품이 어떤 작품이나 문학적 관습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의 작품과 세계관과 그 표현양상이 동일해질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가가 모두 개별적인 존재이고 서로가 다른 의식과 표현의도를 드러내기 때문이라 할

5) 신연우, 『도산십이곡의 은유』, 『시학과 언어학』 제15호, 2008, 75-106면.  
고경희, 『알레고리시학으로 본 <어부사시사>』, 『고전문학연구』 제22집, 2002, 67-92면.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작가에 의해서 새롭게 창작되고 보급되는 작품은 개별적이고 개성적인 것이 되어 독창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상은 변하고, 문학도 새로운 작품으로 대체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작품에 영향을 미친 <어부사>나 <육가>의 작품은 그 작품대로 독창성을 지니고 있으며, <도산십이곡>과 <어부사시사>도 독창성을 잘 드러내고 있어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학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먼저, <도산십이곡>에 나타난 창작동기와 표현의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도산십이곡>은 도산노인이 지은 것이다. 노인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지었는가? 우리 동방의 가곡은 대체로 음란한 소리가 많아 말할 만한 것이 못 된다. 한림별곡과 같은 것들은 문인의 입에서 나왔으나 궁호(矜豪)하고 방탕(放蕩)하며 게다가 거만하고 농지거리하는 내용이라 더욱 군자가 숭상할 바가 아니다. 다만 근세의 이별(李鵬)의 <육가>가 세상에 널리 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보다 좋다고 하나, 역시 애석하게도 완세불공(玩世不恭)의 뜻이 담겨져 있고 온유둔후(溫柔敦厚)한 내실이 적다. 노인은 원래 음악을 모르고 세속의 음악은 오히려 듣기 싫어해서 한가하게 지내며 병을 요양하는 여가에 무릇性情(性情)에 느끼는 바가 있으면 늘 시로 나타내곤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詩)는 옛날의 시(詩)와 달라서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할 수는 없다. 만약 그것을 노래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속(俚俗)의 말로 엮어야 한다. 대개 우리나라의 풍속에 부합하는 음악의 가락이 그렇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찍이 이별(李鵬)의 <육가(六歌)>를 약모(略傲)하여 <도산육곡(陶山六曲)>을 돌 지었는데, 그 하나는 언지(言志)이고 또 하나는 언학(言學)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익히게 하여 노래 부르게 하고는 안식에 기대어 듣기도 하며,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하고 스스로 춤추게 한다면 비부하고 탐욕스런 마음을 씻고 감발융통(感發融通)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니,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sup>6)</sup>

위의 글에서 <도산십이곡>을 지은 동기는 1)국문시가가 지닌 가창의 필요성, 즉 오늘날의 시는 옛날의 시와 달라서 이속(俚俗)의 말로 엮어야 노래를 할 수 있다고 한 점, 2) 궁호방탕(矜豪放蕩)하고 설만희압(褻慢戲狎)한 <한림별곡>과 완세불공(玩世不恭)한 <장육당육가>가 유행하는 풍조를 개혁하기 위해 이황은 온유둔후(溫柔敦厚)한 <도산십이곡>을 창작한 점, 3) 온유둔후(溫柔敦厚)한 <도산십이곡>을 아침저녁으로 아이들에게 부르게 하여 감상하며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모두 유익하리라고 한 내용 등을 통해서 대중교화의 목적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도산십이곡>은 이황이 정치현실에 나아가 정세제민의 의식을 표출한 시가라기보다 출처관(出處觀) 중에서 특히 출(出)보다는 처(處)에 관한 견해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벼슬길에 나아가 사대부보다는 안빈낙도(安貧樂道)하며 산수자연에 묻혀서 생활하는 유학자의 처지와 태도에서 시가개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어부사시사>에 나타난 창작동기와 표현의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동방에 예로부터 어부사가 있었는데, 누가 지은 것인지는 모르나 고시를 모아서 곡을 붙인 것이다. 읊으면 강바람과 바다 그리고 비와 같은 시원함이 가슴에 가득 일어, 세상을 떠나 남과 상관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자하는 뜻을 갖게 한다. 이렇므로 농암선생은 이를 좋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퇴계선생께서도 크게 칭찬하였다. 그러나 음향이 상응하지 않고, 뜻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 옛 시구를 모았기 때문에 뜻이 구면에 저촉되는 흠을 면하

6) 李滉, 『陶山十二曲跋』, 『退溪集』卷43. 右陶山十二曲者 陶山老人之所作也 老人之作此何爲也哉 吾東方歌曲 大抵多淫哇不足言 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蕩 兼而褻慢戲狎 尤非君子所宜向 惟近世李鵬六歌者 世所盛傳 猶爲彼善於此 亦惜乎共有玩世不恭之意 而小溫柔敦厚之實也 老人素不解音律 而猶知厭聞世俗之樂 閑居養疾之餘 凡有感於性情者 每發於詩 然今之詩異於古之詩 可談而不可歌也 如歌曲之必綴以俚俗之語 蓋國俗音節所不得不然也 故嘗略傲李鵬而作 爲陶山六曲者二焉 其一言志 其二言學 欲使兒輩朝夕習而歌之 憑几而聽之 亦令兒輩自歌而自舞蹈之 庶幾可以蕩滌鄙吝 感發融通 而歌者與聽者不能無交有益焉.

지 못했다. 내 그 뜻을 넓히고 우리말로써 어부사를 지었으니, 4계절에 각 한편으로 하고, 한편을 10장으로 하였다. 나는 강조(腔調)와 음율(音律)에 대해서는 진실로 망녕되이 논할 수 없다. 은자들의 삶에 대해서야 더욱 뭐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맑은 늪 넓은 호수에 조각배 띄워 갈 때 함께 노래하고 노 것께 한다면 이 또한 유쾌한 일이다. 또 뒷날 창주의 일사들이 이 마음과 꼭 함께 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널리 백세토록 서로 같이 느끼기는 할 것이다. 신묘년(1651) 가을 9월에 부용동의 낚시질하는 늪은이가 세연정에서 써서 낙기란변(樂飢欄邊)의 배위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노라.<sup>7)</sup>

위의 글에서 <어부사시사>를 창작하게 된 동기는 1) 기존의 <어부사>가 고시(古詩)에서 집구(集句)하여 음향이 상응하지 않고 뜻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점을 우리말로 고쳐서 노래하겠다는 점, 2) 작가가 산수자연에서 전원생활과 여가생활을 하면서, <어부사>의 뜻을 넓혀 새로 <어부사>를 지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10장으로 구성하여 부르고자 한 점, 3) 훗날 창주(滄洲)에 지내는 일사(逸士)들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의도 등이 함께 어울려 있다. 창주에 숨어서 지내는 선비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표출하기 위해 노래한다는 것은 작가가 수용자와 청자의 대상을 한정하여 지정함과 동시에 이 노래의 청자와 전승자를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작가가 <어부사시사>를 지어서 아이들이나 일반백성보다는 창주(滄洲)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일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자하는 작가의 표현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고산은 발문에서 <어부사>를 보고 거기에 '뜻을 덧붙이고 우리말을 써서(衍其意 用俚語)' 표현했다는 의미는 <어부사시사>가 <어부사>에 단지 뜻을 덧붙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완결달래하여 시상을 다듬은 새로운 작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

7) 尹善道, 『漁父四時詞跋文』, 『孤山遺稿』卷6 下, 東方古有漁父詞 未知何人所爲 而集古詩而成腔者也 謠詠期江風雨生牙頰間 令人飄飄然 遺世獨立之意 是以壘巖先生好之不倦 退溪夫子贊無已 然音響不相應 語意不甚備 蓋拘於集古 故不免有局促之欠也 余衍其意 用俚語作漁父詞 四時各一篇 篇章 余於腔調音律固不敢妄議 余於滄洲吾道尤不敢僭附 而澄澤廣湖片網容與之時 使人訕嘖而相裨則亦一快也 且後之滄洲逸士 未必不與此心期 而曠百世而相感也 秋九月歲辛卯 芙蓉洞釣叟書于洗然亭樂飢欄邊船上示兒曹.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어부사시사>는 <어부사>를 즐기는 은자(隱者)들을 위한 노래로 엄격했던 신분 질서와 함께 창주일사(滄洲逸士)로 대표되는 은자들의 삶을 사계절에 맞추어 표현한 시가이고, 일사(逸士)들이 고약한 정치 현실을 피해서 산수자연에서 사계절을 즐기는 강호한정(江湖閑情)의 생활을 노래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의도를 가진 윤선도는 일생의 만년에 보길도로 돌아와 강호에서 전원생활과 여가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우리말로 <어부사시사>를 개작하여 노래하며 즐겼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도산십이곡>과 <어부사시사>에 나타난 창작동기와 그 표현의도를 각 작품의 발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6세기에 창작된 <도산십이곡>은 은유둔후한 미학을 바탕으로 유학자의 일상생활을 표현하고자하는 의도를 담았다고 한다면, 17세기에 창작된 <어부사시사>는 강호한정의 미학을 바탕으로 여가생활을 즐기는 창주일사인 은자의 의식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산십이곡>의 작가는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아침저녁으로 그 노래를 감상해서 가창자와 감상자 모두에게 유학의 은유둔후한 정신을 상기시켜 유익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어부사시사>의 작가는 아이들에게 이 작품을 보여주지만 별다른 요구가 없고 다만 창주에서 노니는 일사들에게 산수자연에서 생활하는 자신의 마음과 감흥을 알아줄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도산십이곡>의 은유둔후는 16세기 사대부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사대부의 가치관이라서 겸선(兼善)의 가치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으며, <어부사시사>의 강호한정은 사대부의 여가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관이라 독선(獨善)이라 할 수 있다.<sup>8)</sup> 그래서 <도산십이곡>에 나타난 산수자연은 선적 자연(善的 自然)으로 유학자의 은유둔후한 미의식을 드러내는데 적합한 표현이라 할 수 있고, <어부사시사>에 나타난 산수

8)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출판부, 1977, 참조.

자연은 미적 자연(美的 自然)으로 일사(逸士)의 강호한정의 미의식을 드러 내는데 적합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3. 작품에 나타난 수사학

문학작품의 특성이라고 하면 보통 다른 글보다 언어의 비유적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이랄 수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수사학은 웅변술이나 말하는 기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는 설득을 위한 도구를 찾는 능력이라고 수사학을 정의하고 있다. 그 이후 18세기까지의 수사학은 설득의 방법으로서 주어진 주제에 맞는 재료를 어디에서 가져와서 어떻게 조립하여 전달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수사학에서는 설득의 방법으로서 말하기 기술이라는 관점을 넘어 인간 경험의 가장 깊은 차원까지 관통하는 인식론적 관점에서 수사학을 다루고 있다. 수사학에 대한 이러한 이해의 본질을 보여주는 학자는 니체(1844-1900)라고 할 수 있다. 니체는 진리를 ‘한 무리의 은유, 환유, 의인화’<sup>9)</sup>라고 정의함으로써 인간이 사유하는 진리라는 것 자체가 수사학적 비유의 덩어리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니체는 서구의 철학에서 오래도록 추구해오던 진리라는 개념 자체가 기원을 상실한 ‘낡은 동전’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진리에 대해 말하는 담론이 진리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 비유한 담론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야콥슨(1896-1982)은 오늘날의 수사학을 은유와 환유의 두 가지로 환원시켜 설명하고 있다<sup>10)</sup>. 과거에 말하기 방법으로서의 수사학은 다양한 수사학적 방법들의 전시장을 방불하게 했다면,

9) 프리드리히 니체(이진우 역), 『비극적 사유의 탄생』, 문예출판사, 1997, 200면.

10) 로만 야콥슨(신문수 편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 지성사, 1989, 34쪽.

현대의 수사학은 이러한 다양성을 줄여서 근원적인 수사학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환원의 방향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작품의 구조에서 사용된 언어의 조직은 계열의 축을 따라 수직축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통합의 축을 따라 확장하기도 한다. 은유는 언어의 조직이 계열체의 축을 따라 형성되는 유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사학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환유는 언어의 조직이 통합체의 축을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인접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사학이다. 계열축이나 수직축으로 이어지는 언어의 비유적 표현인 은유는 각각 서로 다를 지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한 문장 안에서 같은 위치에 올라와 있는 일련의 단어들과 서로 연관관계가 맺어져 은유 혹은 대치 및 계열체의 영역으로 의미축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통합축이나 수평축으로 이어지는 언어의 비유적 표현은 문장의 구조 안에서 단어들끼리 서로 의미를 확장하며 계기적인 순서로 연관관계가 맺어져 환유 혹은 치환 및 통합체의 영역으로 의미축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은유의 수사학은 수직축을 통해 의미의 동일성을 추구하는 정적인 구조라 할 수 있고, 환유의 수사학은 수평축을 통해 의미를 확대시켜가는 동적인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미 필자는 은유와 환유를 수사학을 활용하여 민요를 연구<sup>11)</sup>하고 그 작품을 분석하여 보았다.

조선시대의 산수시조에는 은유의 수사학으로 언어를 전환해서 계열축이나 수직축을 바탕으로 사대부들의 강호가도를 노래한 작품도 있고, 또 환유의 수사학으로 언어를 확장하여 통합축이나 수평축으로 사대부들의 강호가도를 노래한 작품도 있다. 먼저, 은유의 미학을 수용하여 언어의 전환을 주된 표현수단으로 하면서 산수자연의 모습에 성리학의 성정미학을 표현하는 <도산십이곡>에 나타난 은유의 수사학을 분석하고자 한다.

11) 류해춘, 「고려시대 정치민요의 기능과 그 미학」, 『어문학』 제65집, 1998, 145-164면.  
류해춘, 「조선시대 정치민요의 유형과 그 미학」, 『어문학』 제71집, 2000, 205-227면.

1) <도산십이곡>과 은유의 수사학

은유는 동일성의 미학을 통해 주체와 대상 사이의 총체성을 지향하는 수사학일 뿐만 아니라, 기호의 본질 또는 기원을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관점을 지닌 수사학이다. 여기서 은유라는 용어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언어의 사용을 수직축이나 계열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표현수단으로 하는 비유로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은유의 수사학은 같은 계열의 값을 가진 낱말들을 결합하는 수직축의 원리에 의해서 비롯된 비유라고 할 수 있다. 은유는 두 사실의 유사성과 상호 관련성을 근거로 1:1의 대등한 유추적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은유의 스타일은 계열체적 순서를 의미하며 단어들의 종속적 관계에 따르며 선언적이다. 다시 말해서 은유의 의미는 앞으로 결정될 것이라기보다 수직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도산십이곡>은 화자가 산수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모습과 함께 은유의 수사학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들 엇다흐며 더린들 엇다흐료  
草野 愚生이 이러타 엇다흐료  
흥들며 泉石膏肓을 고타 므슴흐료

<도산십이곡> 前六曲 其一

이 작품은 <도산십이곡>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조이다. 이 시조에서는 시적 화자가 초야우생(草野愚生)의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유되어 있다. 그리고 화자에게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고칠 수 없는 병인 천석고황(泉石膏肓)이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이 작품의 초장에서는 ‘이런들 엇다흐며’와 ‘더린들 엇다흐료’라는 구절을 통해서 비슷한 의미를 반복하고 있으며, 중장에서도 첫구절인 초야우생의 의미를 빼고 나면, 다

12) 마이클 라이언(나병철, 이경훈 옮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정치와 문화』, 갈무리, 1996, 197면 참조.

시 ‘이러타 엇다흐료’가 비슷한 의미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중장에서도 첫구절인 ‘흥들며 천석고황을’ 제외하고 나면, ‘고타므슴 흐료’라고 하여 초장과 중장에서 화자가 주장한 의지를 고치지 못하겠다고 반복하여 은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이 노래는 시적 화자인 초야우생이 자연을 사랑하는 천석고황의 병을 버릴 수 없는 간절한 소망을 서술어의 반복을 통한 은유적 수사학으로 강조하고 있다. 초장에서부터 중장까지 사용된 서술어는 ‘엇다흐며’-‘엇다흐료’-‘엇다흐료’-‘므슴흐료’ 등인데 이러한 표현은 비슷한 서술어를 통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은유의 수사학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구조적인 문장을 통해서 은유의 수사학을 보이는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幽巖이 在谷하니 自然이 들디 도해  
白雲이 在山하니 自然이 보디 도해  
이등에 彼-美人를 더욱넋디 못흐에

<도산십이곡> 前六曲 其四

이 작품은 화자는 초장에서 그윽한 난초가 골짜기에 존재해 있으니, 자연히 듣기가 좋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중장에서 흰 구름이 산에 존재해 있으니, 자연히 보기가 좋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에서 화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 피일미인(彼-美人)을 더욱 잊지 못하겠다고 한다. 초장의 의미구조와 중장의 의미구조는 하늘과 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서로 비슷한 의미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초장과 중장은 유란(幽巖)이 골짜기의 제자리에 있고, 백운(白雲)이 산속에 걸려서 제자리에 있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묘사하면서 병렬하고 있다. ‘유란’은 골짜기에 그윽이 숨겨져 있기에, ‘백운’은 산자락에 무심히 걸려있기에 자연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유란과 백운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속성을 오래도록 지녀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다. 이처럼 초장과 중장의 수사법은 화자가 땅의 모습과 하늘의 모습이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다고 하는 의미를 병렬하고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는 은유의 수사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장에서 화자는 인간의 세상에서 피일미인(彼一美人)을 자연의 유란과 백운처럼 가지있는 천인합일(天人合一)적인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 여기서 천인합일적인 인물이란 성리학(性理學)의 연마를 통하여 천인합일의 이치를 깨달아서 자연스런 삶을 살아가는 인물인 유학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미인(美人)을 임금이나 남편 그리고 연인 등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sup>13)</sup>. 하지만 시적 화자인 퇴계에 있어서 그러한 인물은 삶의 지표가 되었던 정자(程子)나 주자(朱子)와 같은 송(宋)나라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들처럼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합일을 추구하는 내용을 반복하는 은유가 주된 수사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은유의 수사학을 보여주는 다른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靑山은 옛데하야 萬古에 프르르며  
流水는 옛데하야 晝夜에 굿다아니논고  
우리도 그치디마라 萬古常靑 호리라

<도산십이곡> 後六曲 其五

<도산십이곡>에서는 위의 시조처럼 초장과 중장의 통사구조가 그대로 반복되는 행의 병렬(parallelism)이 구사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조에 나타나는 병렬은 비형식적인 언어인 구술문화의 대표적인 예<sup>14)</sup>가 된다. 문자문화인 형식적인 언어에서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병렬

13) 전제강, 「도산십이곡의 이기론적 근거와 내적 질서 연구」, 『어문학』 제70집, 한국어문학회, 220면 참조.

14) 윌터 J. 용(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1995, 참조.

과 반복의 표현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은유의 수사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민요와 같은 구술문화에서는 정형성이 결여되어 있기에 병렬이 거의 유일한 작시법의 기능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지만, 시조에서 행의 병렬이 많은 구조를 보이는 이유는 구전되는 우리말의 특성을 반영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초장에서 청산은 시간이 흘러도 푸르다는 불변함을 표현하고 있으며, 중장에서는 시냇가에 흐르는 물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흐르고 있다고 표현을 하여 두 행의 병렬을 이루어내고 있다. 그 내용은 만고에 푸르고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 청산과 유수로 비유되는 자연의 불변함을 표출하며 동경하고 있다. 그리고 화자는 중장에서 자연의 불변함을 이어받아 우리들도 변함없는 수양의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중장에서 화자는 청자를 향하여 다정하게 '우리도'라는 공동체의 명사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대화체로 권유하면서 우리도 수행을 그치지 말고 자연처럼 항상 푸르게 존재하자며 불변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화자는 초장과 중장에서 구문과 행의 병렬이라는 은유의 수사학을 통해서 자연의 변함없음을 찬양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변함없는 수행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 시조는 초장과 중장에서 자연의 불변함을 노래하고 있으며, 중장에서까지도 인간이 자연처럼 자신의 수양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불변함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은유의 수사학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도산십이곡>에 나타난 은유의 수사학을 살펴보았다. 은유의 수사학은 계열체의 언어나 병렬의 문장들을 결합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는 동일성의 세계를 함축하는 언어의 전환적 기법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은유의 수사학은 시조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전개하면서 앞의 내용을 전복하여 전개하기보다는 시조의 초장에서 제시한 명제를 그대로 이어간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은유의 수사학은 <도산십이곡>에서 기호와 관념 사이를 모순이 없는 등가관계로 연결시켜 온유둔후(溫柔敦厚)의 미학을 획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어부사시사>와 환유의 수사학

환유는 통합체제적인 언어구조와 대상의 개별적인 성격이 인접성의 원칙을 통해 부분과 전체에 대한 대상의 총체성을 표현하는 수사학일 뿐만 아니라, 단지 다른 기호들과의 인접성에 의해 기호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여기서 환유라는 용어는 문학작품에서 언어의 사용을 통합축이나 수평축으로 확장하면서 연상하는 표현을 주된 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유로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환유의 수사학은 같은 층위에서 모종의 방식으로 채택된 낱말과 낱말을 결합시키는 수평축으로 언어의 사용을 확장시키는 비유라고 할 수 있다. 환유는 은유의 이상화하려는 경향과 궁극적으로 모순되며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물질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환유의 의미는 이미 결정된 사실을 반복하기보다는 작품 속에서 그 뜻을 수평적으로 확장하여 간다는 것이다.<sup>15)</sup>

<어부사시사><sup>16)</sup>는 화자가 은거생활의 벗이 된 산수자연을 감상하면서 자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환유의 수사학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우는 거시 벽기기가 프른 거시 버들숨가  
漁村 두어집이 닛속의 나락들락  
말가흔 기븐 소회 온간 고기 뛰노느다  
<어부사시사> 春詞4

위의 작품에서 화자는 봄철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노래하고 있다. 초장에서 화자는 빠꾸기와 버들 숲을 노래하고 있다. 빠꾸기 소리는 청각적으로 잡은 봄의 흥취이며 푸르른 버들 숲은 시각적으로 잡은 봄의 경치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봄의 경치를 시각과 청각으로 확대하여, 단순히 평면적으로 봄의 감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봄

15) 마이클 라이언(나병철, 이경훈 옮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정치와 문화』, 갈무리, 1996, 197면.  
16) 김진중, 『한국사시가의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박사), 1992, 참조.

의 감흥을 그러한 흥취를 시정각의 효과로 표현하고 있다. 중장에서 화자는 어촌의 두세 집이 연기 속에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여기서 화자의 초점은 초장의 버들 숲과 빠꾸기에서 봄철의 다른 경치인 안개 속에 들락날락하는 어촌의 풍경화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환유의 수사학을 사용하고 있다. 중장에서 화자의 초점은 다시 물 맑은 깊은 소(沼)라는 강물로 옮겨져서, 석양의 맑은 강물위에 놓고 있는 고기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살펴보면 중장의 굴뚝의 연기와 온갖 물고기는 이미지가 서로 상반된다고 할 수 있지만, 봄철의 정취를 설명하는 상황에서 서로 인접성의 의미로 연결되는 환유의 수사학이라고 할 수 있다.

水國에 ㄹ올히 드니 고기마다 슬져 인다  
萬頃 濤波의 슬꺨지 容與한자  
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어부사시사> 秋詞2

위의 작품에서 화자는 수국(水國)의 가을철을 동경하고 인간세계의 흥진(紅塵)을 벗어나려고 하는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초장에서 화자는 어부처럼 바다에서 가을철의 살찐 고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살찐 고기가 있으면 가을철에 배를 타고 낚시를 하거나 고기를 잡아야 하는 어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에서 화자는 계열체의 비유가 아닌 수평축이나 인접성의 비유를 통해 가을철 맑은 파도로 초점을 이동하고 있다. 초점을 이동한 화자는 바다의 파도와 즐기면서 바다에서 실컷 놀아보자고 한다. 여기서는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은 사라져 버리고, 가어옹(假漁翁)이 되어 바다에서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화자는 만경의 넓이뿐만 아니라, 떠나온 거리에서 펼쳐진 맑음의 물결이 싫어지도록 놀아보자고 한다. 이처럼 화자는 중장에서 바다와 인간계상으로서 의미를 확대하는 환유의 수사학을 사용하고 있다. '인간을 돌아보니 멸수



록 더욱 좋다'라는 구절은 떠나온 인간세상을 뒤돌아보니 그 인간세상과는 거리를 둘수록 더욱 좋은 것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살펴보면 화자가 표현한 초장의 살찐 물고기와 종장의 파도놀이 그리고 종장의 인간 세상에 대한 혐오는 이미지가 서로 상반된다고 할 수 있지만, 가을철의 경취를 설명하는 상황에서 서로 인접성의 의미로 대체될 수 있는 환유의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인간세상은 흥진이 일고 좋지 않다는 감추어진 생각을 수평축으로 확대하고 연상하는 환유의 수사학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화자는 이미지의 조화나 통일성보다는 이미지의 돌발성이나 일탈성을 표면에 내세우는 환유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유적 관점으로 사물을 살피게 되면 인간의 눈은 사물의 이면이나 정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을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눈으로 바뀌게 된다.

어와 저머려간다 宴息이 말당토다  
눈은 빠른길 불근곳 훑터던데 흥치며 걸어가서  
雪月이 西峰의 넘도록 松窓을 비겨잇자  
〈어부사시사〉 冬詞10

초장에서 화자는 지금까지의 <어부사시사>의 율격과 리듬을 깨뜨리는 '어와'라는 감탄사로 시작하여, 해와 달이 '저물어감'에 대한 미련을 나타내면서 안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종장에서 화자는 가는 눈이 온길에 동백이 흩어진 길을 흥치며 걸어가고자 한다. 즉, 화자는 동백이 흩어진 길을 즐겁게 그리고 활기 넘치는 즐거움으로 산보하는 겨울철의 풍경으로 초점을 이동하고 있다. 종장에서 화자는 눈 속에 달이 서쪽으로 넘어 가는 모습을 소나무 창가에서 비껴 앉아서 감상하고자 한다. 화자는 종장에서 설월교광(雪月交光)의 선경(仙境)을 감상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초장에서 안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종장에서는 눈길을 산보하는 모습으로 그 초점을 이동하고 있으며, 종장에서는 설월교광의 경치를 감상하자 하는 쪽으로 이미지를 인접한 영역으로 확대하는 환유의 수사학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겨울철이라는 이미지에 공간적으로 인접해있는 의미체를 수평축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이미지의 결합이 자유연상에 가까운 환유의 본질적인 특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어부사시사>에 나타난 환유의 수사학을 살펴보았다. 환유의 수사학은 경험적이고 특수한 것을 중요시여기고 같은 층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되는 단어와 문장을 확장하여 통합적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환유는 은유의 관념화하려는 성질과 궁극적으로 다르며 그것을 허물어뜨리려는 의도성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환유는 이상적이고 보편적이라기보다 경험적이고 특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은유가 보수적 표현이라면 환유는 진보적 표현이 되고, 은유가 전통지향적이고 정적이고 결정적이라면, 환유는 미래지향적이고 동적이며 미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유의 수사학은 경험적이고 특수한 체험의 내용을 <어부사시사>에 표현하여 강호한정(江湖閑情)과 물외한적(物外閑寂)이라는 독특한 미학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 결론

지금까지 <도산십이곡>과 <어부사시사>의 표현양상과 그 수사학에서 논의한 것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도산십이곡>과 <어부사시사>는 사대부가 정치현실에 나아가 경제계민의 의식을 표출한 시가라기보다는 산수자연에 은거하여 생활하면서 안빈낙도(安貧樂道)를 표출하는 시조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시조는 사대

부들의 출처관(出處觀) 중에서 출(出)보다는 처(處)에 관한 견해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벼슬길에 나아가 경세제민하는 사대부보다는 귀거래하여 안빈낙도하며 산수자연에 묻혀 사는 은자의 처지와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항(1501-1570)과 윤선도(1587-1671)는 <도산십이곡>과 <어부사시사>를 통해서 기존에 지어진 시가의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다. 16세기에 창작된 <도산십이곡>의 발에 나타난 표현의도는 은유돈후한 미학을 바탕으로 유학자의 일상생활을 표현하고자하는 의도를 담았다고 한다면, 17세기에 창작된 <어부사시사>의 발에 나타난 표현의도는 강호한정의 미학을 바탕으로 여가생활을 즐기는 일사의 여가생활을 담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산십이곡>의 은유돈후는 16세기 사대부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사대부의 가치관이라 겸선(兼善)이라 할 수 있으며, <어부사시사>의 강호한정과 물외한적(物外閑寂)은 사대부의 여가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관이라 독선(獨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산십이곡>에 나타난 산수자연은 선적 자연(善의 自然)으로 은유돈후한 유학자의 미의식을 드러내는데 적합한 표현이라 할 수 있고, <어부사시사>에 나타난 산수자연은 미적 자연(美的 自然)으로 숨어사는 은자나 일사의 강호한정과 물외한적의 미의식을 드러내는데 적합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도산십이곡>에 나타난 은유의 수사학은 계열체의 언어나 병렬의 문장들을 결합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는 동일성의 세계를 함축하는 언어의 전환적 기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은유의 수사학은 시조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전개하면서 앞의 내용을 전복하여 전개하기보다는 시조의 초장에서 제시한 명제를 그대로 이어간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산십이곡>에 나타난 은유의 수사학은 산수자연이라는 기호와 성리학이라는 관념 사이를 모순이 없는 등가관계로 연결시켜 전환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유학자의 은유돈후(溫柔敦厚)와 겸선(兼善)의 미학을 획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어부사시사>에 나타난 환유의 수사학은 경험적이고 특수한 것을 중요시 여기고, 같은 층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되는 단어와 문장을 확장하여 통합적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환유는 은유의 관념화하려는 성질과 궁극적으로 다르며 그것을 허물어뜨리려는 의도성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환유는 이상적이고 보편적이라기보다 경험적이고 특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은유가 보수적 표현이라면 환유는 진보적 표현이 되고, 은유가 전통지향적이고 정적이고 결정적이라면, 환유는 미래지향적이고 동적이며 미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어부사시사>에 나타난 환유의 수사학은 은자(隱者)가 산수자연에서 경험한 특수한 체험의 내용을 <어부사시사>에 표현하여 강호한정(江湖閑情)과 물외한적(物外閑寂) 그리고 독선(獨善)의 미학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글은 <도산십이곡>과 <어부사시사>에 나타난 수사학이 은유와 환유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석하였으므로 앞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창작의도와 수사학의 세계관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단하여, 미의식과 수사학의 분석이 필자가 의도한대로의 결론을 도출한 것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홍규, 「강호자연과 정치현실」, 『세계의 문학』 제19호, 1981, 민음사, 참조.

로만 야콥슨(신문수 편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 지성사, 1989, 참조.

류해춘, 「고려시대 정치민요의 기능과 그 미학」, 『어문학』 제65집, 1998, 145-164면.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1996, 참조.

마이클 라이언(나병철, 이경훈 옮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정치와 문화』, 갈무리, 1996, 197면.

윌터 J. 옹(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1995, 참조.

이동영, 『조선조 영남시가의 연구』,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참조.

이동환, 「퇴계문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18집, 1990, 1-11면.

이민홍, 『조선중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3.

조윤계, 『한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63, 130-141면.

조동일, 「고산연구의 회고와 전망」, 『고산연구』제1집, 1987, 347-358면.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출판부, 1977, 35-43면.

투고일 : 2010년 12월 31일, 심사 : 2011년 1월 17일~ 2월 11일, 게재확정 : 2월 15일

<Abstract>

The Creative Intension and the Rhetorical Views in Dosansipigok(도산십이곡) and Eobusasisa(어부사시사)

Ryoo, Hae-Cho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lluminate literary characteristics on Dosansipigok(도산십이곡) and Eobusasisa(어부사시사) in Choson Dynasty through the Creative Intension and the Rhetorical View. The signifiacnce on Dosansipigok(도산십이곡) and Eobusasisa(어부사시사) is that it has a lot of rheoric used to contain compressed meanings in simple rhythm and stanzas. This has a great inflence upon the development of poetic rhetoric. Nowadays the rhetoric is perceived in the indicative tool of the worldview of writer. Then the Language that man's thinking is established by is must be rhetorical, the rhetorics of poetry are two the metaphor and the metonymy, that these are the two aspects of man's thinking. Metaphor is the rhetoric of identity and it aims for the totality of the subject and object. It is the essential rhetoric on Dosansipigok(도산십이곡). In the case of Dosansipigok(도산십이곡), the subject and nature is identified in the point of emotion. On the other hands, Metonymy is the rhetoric of contiguity. It denies the identity of subject and the world. Eobusasisa(어부사시사) is founded with the rhetoric of metonymy. In the case of Eobusasisa(어부사시사), the deconstruction of images and the arrange of numerous unidentified images are the feature of metonymy and Si-Jos(시조문학). This sort of discussion needs to be popularized and continuous effort spent to elucidate the poetic principles related to

the reform or change of work in Si-Jos(시조문학)

**Key words** : Si-Jos(시조문학), Creative Intension, Rhetorical Views, Dosansipigok(도산십이곡), Eobusasisa(어부사시사), Metaphor, Metonymy